

남원시, LH전북본부와 업무협약

향교동 일대 단독주택용지·공공청사·주차장·공원녹지 등 조성 계획

남원시는 23일 시장실에서 임정수 LH전북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교동 일대에 구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17만3,000㎡에 331억원을 들여 6만4,000㎡의 공동주택단지 3개 블록과 1,166세대를 수용하는 1만6,000㎡의 단독주택용지, 공공청사, 주차장, 준주거용지, 공원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날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근로자 및 신흥부부와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LH전북본부는 남원지역 부도 임대아파트 매입 임대, 다기구주택 매입 임대,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전세임대 운영, 주거급여 주택 조사 등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남원시는 23일 시장실에서 임정수 LH전북지역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필요한 자료와 정보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공 또는 공유할 방침이다.

임정수 LH 전북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공공주택 건설과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이를 통해 시민 주거안정은 물론 남원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환주 시장은 "LH와의 이번 협약체결로 시민들께 보다 많은 주거복지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남원이 지속가능한 문화복지 도시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30% 저렴하게 김장 담가요”

임실, 아삭아삭김장페스티벌 31일까지 추가접수

다가오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춧값이 폭등, 서민가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임실군 김장페스티벌에 참여하면 30% 이상 저렴하게 '청정임실표 김장'을 담글 수 있다.

올해 김장페스티벌은 작년과 같은 가격대로 더 많은 물량을 준비, 축제기간도 대폭 확대되어 참여신청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임실군은 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무려 9일間に 걸쳐 제4회 임실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해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했던 행사였지만, 올해부터는 참여열기가 높아 일주일 더 확대했다. 물량도 작년 27톤에서 44톤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참여자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의 경우 참여 인원은 544팀에 2000여명이었으나, 올해는 900여팀에 3600여명의 참여가 가능할 만큼 물량을 대폭 확보했다.

특히 올해 김장페스티벌은 지난 링링 등 태풍으로 인해 절임배추의

대표산지인 전라남도과 강원도의 피해로 인해 산지 배춧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김장재료(배추, 고춧가루, 무, 양파 등)를 직접 구매해서 김장을 담글 때보다 30% 저렴하게 김장을 해결할 수 있다.

김장재료의 원산지, 품질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청정 임실에서 생산한 우수 농산물(절임배추, 고춧가루 등)로 대형 돛단트 안에서 미세먼지 걱정없이 위생적으로 김장을 담글 수 있다.

김치맛을 책임질 김치숙 양념도 작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해, '확찬' 맛나 김치를 가져갈 수 있다.

배춧값 등 김장재료 값의 폭등과 원재료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 올해 김장을 포기하려고 했던 가정에서는 임실 김장페스티벌 참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아직도 김장을 해결하지 못한 가정이나 단체에서는 신청을 서둘러야, 청정농산물을 이용한 김장김치를 훨씬 저렴하게 맛보고, 월동 준비 걱정도 내려 놓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덕과면 수촌마을 나라사랑 행복한집 제4500호 준공

남원시 덕과면 수촌마을에서는 23일 '나라사랑 행복한집' 제4500호 준공 행사를 가졌다.

이 사업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복권기금으로 국가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남원시 덕과면 수촌마을 김갑규 6925 참전유공자 주택을 제4500호로 선정했다.

준공 행사에는 보훈공단 이사장과 김동규 남원부시장과 보훈관련단체 및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광주보훈병원의 이동진료팀에서는 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대상인 김갑규 유공자의 주택은 40년이 넘는 실내 화장실이 없고 외풍에 취약한 구조의 오래된 흙집으로, 절반은 무너진 블록 담을 철거하고 낮은 나무 울타리로 바꾸고 실내에 화장실과 세탁실을 만들었으며 뒷마루에 샷시를 설치하고 출입구 단차 제거로 아담하고 이용이 편리한 집으로 바뀌었다.

김갑규 유공자는 올해 94세로 지리산 남부군 토벌작전에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의용경찰로 활동하였으며 첫째 아들도 월남전에 참전하여 대를 이어 민주주의와 평화를 사랑한 가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아로니아 청국장 환’ 제품 개발

리던 매장·순창로컬푸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원장 정도연, 이하 진흥원)이 신바이오틱스(Symbiotics) 제품인 '순창 아로니아 청국장 환'을 개발해 식품 시장에 뛰어 들었다.

이는 토종 발효 미생물과 슈퍼푸드 아로니아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품으로 지난해 선보인 '토마토 청국장 환'에 이어 두 번째 상품이다.

지난 제14회 순창정류축제 기간에 첫 선을 보이며,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으며, 현재 리던 매장과 순창로컬푸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

에 들어갔다. 리던 홈페이지상에서도 리뉴얼을 통해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청국장 환은 지난 2016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로 새롭게 발굴한 토종 프로바이오틱스 고초균을 적용한 청국장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서 비롯됐다.

청국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진흥원은 청국장 효능은 유지하면서 먹기 편하도록 만든 이번 아로니아 청국장 환이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아로니아 동결건조 분말을 7%나 함유하고 있어 항암, 항비만 등 아로니아의 다양한 가능성이 더해져 변비, 다이어트 등에 관심이 많은 젊은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미생물을 활용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른 관련 제품들이 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며, 이번 청국장 환이 K-푸드로서 세계 식품시장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진흥원 측은 예측하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제품을 통해 청국장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과 순창군의 농특산물인 아로니아의 인지도 확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평생학습축제 한마당

남원시는 23일 어현동 사랑의 광장에서 제16회 남원시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를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쳤다.

이번 축제는 '사랑애 남원에서 즐기

는 평생학습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성인문화 한마당, 평생학습 행사를 비롯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바라보회가 함께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열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즐거운 소통과 배

움의 장을 선보였다. 성인문화 학습자들의 열띤 골든벨 행사에서는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해 문제를 풀 때 마다 희비가 있었으며, 성인문화 우수 시화전시관에서는 한글을 깨운 친 어르신들이 마음을 글로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친환경 쌀 미곡종합처리장 호응

남원시가 2019년 전북 쌀 Rice-up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추진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가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Rice-up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쌀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친환경 쌀 품위 향상을 통한 친환경 쌀 학교급식 등 전국 유통망을 확대하는 기반시설 마련 사업이다.

남원에서는 지난해 남녕농조조합인이 전북도에서 추진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1천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남원시에서 올해 확보된 국비 2억1천만원과 시비 6천3백만원, 자부담 1억4천7백만원 등 총 사업비 4억2천만원을 투자해 친환경 쌀 미곡종합처리장을 시설 현대화와 색채선별기 등을 새로 설치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풀무원건강생활 직원 3년째 실랜드 힐링프로그램 참여

순창 실랜드의 매력에 빠진 주식이사 풀무원건강생활 직원이 3년째 실랜드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장건강 맞춤형 프리바이오틱스 체험단'으로 교육에 참여하며, 프로그램은 오는 25일 시작으로 앞으로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장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이번 프로그램은 관련 교육과 더불어 장내 유익균의 영양소인 프리바이오틱스가 다량 함유된 현미를 중심으로 숙직, 미나리

등 식이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로 구성된 청국장 등 순창산 관내 농산물을 활용한 건강식사가 제공된다.

장 건강 프로그램은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 장을 자극 하는 스트레칭 및 공복 요가, 프리바이오틱스가 다량 함유된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체험단에 교육 전·후 인바디 측정(체성분 측정)을 통하여 장 건강이 체중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질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

저소득 독거노인 주거환경 도와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만식, 홍효덕)는 23일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 특화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행복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재능기부와 임실사회복지협의회 재료비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주택외부 바람막이 설치, 도배, 처마 보수, 전등 교체 등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임실을 독산마을에 거주하는 이모(67)씨는 "주택 외부 바람막이 오래돼 찢겨지고, 도배 및 처마도 보수가 시급해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홍효덕 임실읍장은 "위원들의 재능기부와 봉사 정신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만식 민간위원장은 "저소득층의 생활이 힘들어진 요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